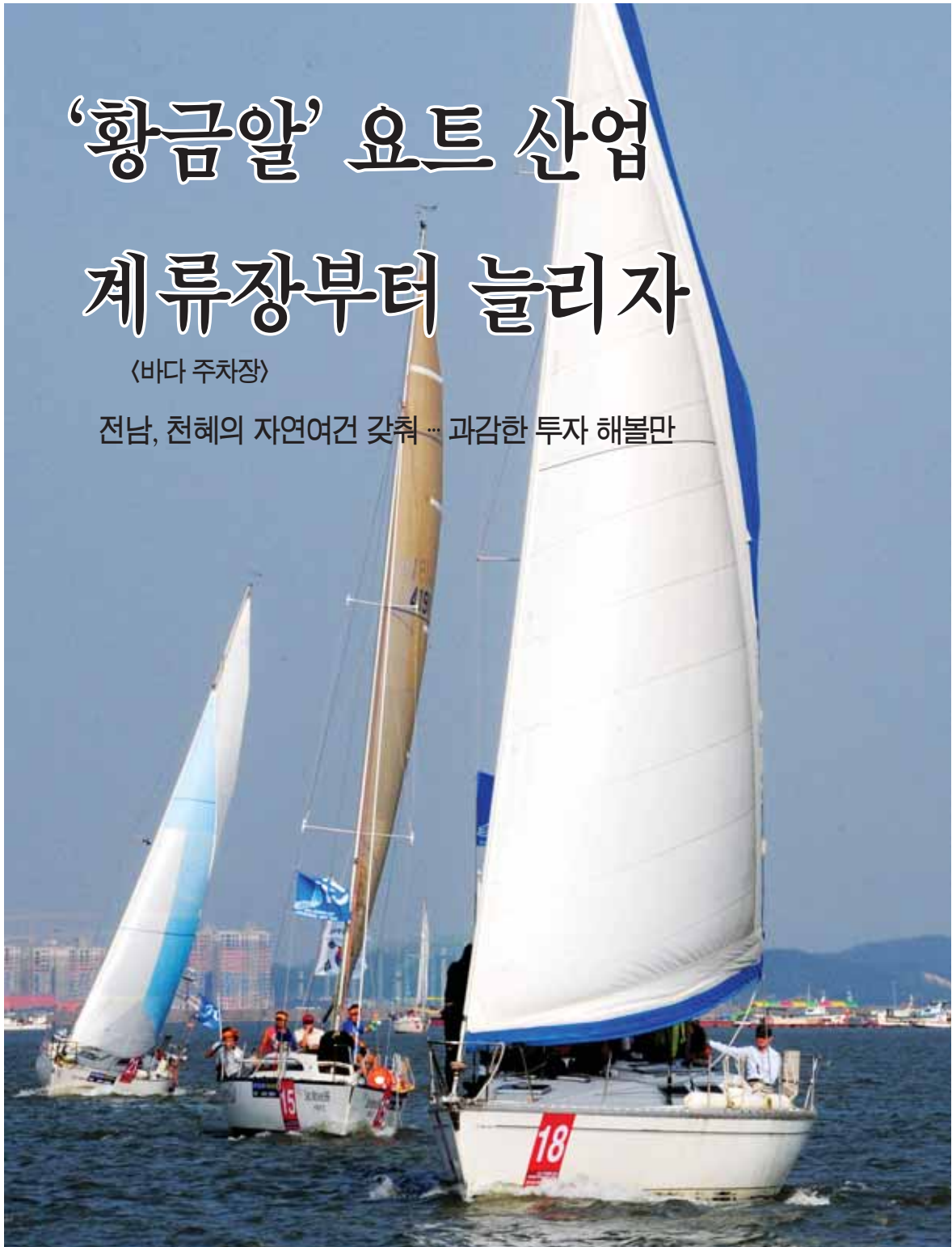


‘황금알’ 요트 산업 계류장부터 늘리자

〈바다 주차장〉

전남, 천혜의 자연여건 갖춰... 과감한 투자 해볼만



‘2012 전남~제주 국제요트레이스’에 참가한 한국,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등 5개국 23개팀이 4일 오후 목포 요트마리나에서 평화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고가의 수입산 대체할 생산업체 육성 시급

요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다 주차장’인 요트 계류장을 늘리고, 국내 요트 생산 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과제도 많다. 국내 요트 계류장이 적어 요트를 사고 싶어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고가의 수입산이 요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발전 속도도 더디다.

5일 요트 업계에 따르면 세계 해양 레저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약 895억 달러이며, 이중 요트 생산 등 레저장비산업 총 매출규모는 2014년에 480억 달러 규모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트가 고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해양레저장비 보유 척수는 2440만척으로 추정되며 매년 100만척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에 4만개 이상의 해양레저장비 제조업체 중 상위 5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400여개의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마리나 항구 1만2100개, 정박장 및 계류장 87만4000개 등 세계 최고 해양레저장비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요트 선진국에서도 요트 설계생산기술 전문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요트 산업의 태동기 수준이며, 60개의 생산 업체가 20ft미

만의 소형 요트를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체들이 지난 2007년 1만500척(모터보트 포함)을 시작으로 2015년 4만6000척으로 늘 것으로 보이는 요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부분 고가의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요트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도 12.8%에 달한다.

비싼 외국산 요트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 일반인들은 5000만원에서 수백억원이 넘는 요트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반나절 대여비도 120만에 달한다.

또 해양레저장비산업 발전의 핵심 요건 기반인 요트 계류시설 부족도 큰 문제다. 현재 국내 운영중인 마리나의 총 계류 능력은 1344척에 불과하다. 미국(계류시설 87만4000척), 영국(22만5000척), 프랑스(23만3000척), 스웨덴(20만척), 일본(6만9000척) 등 요트 선진국들의 계류 능력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전남지역에서는 현재 목포마리나에 57척, 여수 소호마리나 100척을 계류할 수 있으나 20ft이상 엔진이 달린 크루즈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해상

■ 국가별 요트산업 현황 2011년말 기준

국가	인구(만명)	마리나 시설/개소	요트 보유척	요트 1대당 인구(명)
미국	3억6000	1만7000	1695만2000	17
일본	1억2800	570	28만	366
독일	8260	2400	43만7000	185
영국	6080	500	41만3000	143
프랑스	6170	470	86만6000	68
한국	4850	15	4000	1만1700
호주	1970	2000	58만7000	31
스웨덴	910	1000	133만5000	7

〈자료:해양산업연구원〉

■ 국내 주요 요트경기대회

해군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진해	4월
코리아컵	울진	5월
코리아메치컵 프로암	전국	”
부산수퍼컵 국제요트대회	부산	”
서울 국제요트대회	서울	”
함해컵 국제요트대회	인천	8월
전남~제주 국제요트대회	전남	10월
이순신배요트대회	통영	”
한일친선요트대회	평택	”

계류 시설은 32척에 불과하다. 계류 시설이 부족해 한 달 마리나 이용 비용은 35만원에 달해 전남지역에 있는 100척의 요트 중 상당수는 일반 항구에 묶여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요트를 정박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지난 태풍 ‘볼라벤’ 당시 여수 지역의 크루즈급 요트 9척 중 8척이 파손되기도 했다.

또 주변 시선 때문에 고가의 요트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남도에 등록된 요트는 13척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100척의 요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요트협회 박길철 전무이사는 “계류장이 있어야 요트를 사겠다는 사람도 늘고, 국내 산업도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서 “요트 산업은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춘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인 만큼, 과감한 투자로 계류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광 신 대 학 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 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안철수 후보 호남방문 1박2일 동행 취재

뜨거운 환대 쏟아지자 살짝 흥분

순천만·대불산단·조선대 ... 가는 곳마다 시민 환호

지난 3일 오전 7시55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여수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타이에 열린 파란색 와이셔츠의 편안한 정장 차림이었다. 전국 투어의 첫 방문지로 광주·전남을 선택한 그는 첫날부터 여수·순천·영암·목포 등 4개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

오전 9시 여수시 돌산읍 송도 가두리 양식장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본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바뀌었다. 그는 “3년 동안 키운 물고기와 어구를 보는 어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풍수에 보험을 재점검, 현실에 맞고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태풍 피해 현장을 떠나 안 후보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도착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조용하던 주변은 크게 불비기 시작했다. 나들이객들은 “우와~ 안철수다”며 순식간에 안 후보를 에워쌌다.

안 후보는 200여m가량 한줄로 길게 늘어선 나들이객들에게 “안녕하세요”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일일이 악수했다. 전남은 민주통합당 텃밭이라는 고정 관념이 이곳에서만 큼은 통하지 않는 듯 보였다.

안 후보는 이어 영암 대불산단내 Y선박블록 제조업체에 들러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저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했던 경영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지 안 쓰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든다” “저도 중소기업이 생활의 터전이자 산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방문했다. 그가 하당신도심 평화광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반기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안 후보의 모습을 담은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호남 방문 이틀째인 5일 오전 안 후보는 광주 북구 대촌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에서 광주 기업주치의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와 혁신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광주 충장로의 청원모임에서 점심을 마치고 거리로 나섰다. 충장로를 따라 광주우체국을 거쳐 금남로 2가 무등빌딩 앞까지 이동하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시민들은 갑작스런 그의 등장에 기념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대에 그도 다소 흥분된 눈치였다.

시내 일정을 마친 그는 대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 위해 조선대로 향했다. 조선대 강당 입구엔 그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2000여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안 후보가 강당에 모습을 드러내자, 청중들은 일제히 “안철수”를 연호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지역적 격차와 시대정신, 광주와 호남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호남이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변화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현재 호남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쉽게 잘 풀어낸 탓인지 청중들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을 만큼 그의 강연에 매료된 듯 보였다. 강연 중간 중간 박수도 잇달아 터져 나왔다. 안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설현장 입구에서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문화전당 홍보관으로 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지금 수준의 산업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정의한 뒤, “지금은 문화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데,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바로 광주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홍보관과 윤상원 열사 생가를 방문한 뒤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했다.

안 후보는 1박2일간 여수·순천·목포·담양·광주 등 5개 지역 기업체·광자·마을 등을 돌면서 12개 일정을 소화해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교수 323명 안 지지 선언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323명이 4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대 이배호, 조선대 김대원, 광주대 김병완, 호남대 장석주 교수 등 10여 명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기성 정치인들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대·조선대·광주대·동

신대·호남대·목포대·광주여대 등 광주·전남지역 13개 대학 323명의 지지 교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안 후보는 그우리나라를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안 후보가 당당하게 당선돼 고질적인 병폐로 신음해온 한국정치를 쇄신하고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2012년 11월 12일(월) 12:30분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참가자격

제한대상

경기방식

적용규칙

참가인원

참가비

신청기한

참가신청

예금계좌

참가기념품

국내에 거주하는 남자 순수 아마추어 골퍼에 한함

가. 현재 각종 프로협회에 등록된 골퍼선수 나, 아마추어 국가대표 및 상비군 다. 경기위원회에서 대회참가자가 불가하다고 판정된자.

샷건, 신페리오방식 적용

대한골프협회에서 승인된 골프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정한 로열를 적용

160명(40팀)

1인당(6만원) (그린피, 개별소비세, 캐디피, 그늘집등의 비용은 개인 부담)
2012. 10. 8 ~ 10. 12 (1차접수) 선착순 마감
2012. 10. 15 ~ 10. 19(미달시 2차 접수)

온라인접수 - 함평다이내스티 홈페이지(hpdynastyc.co.kr)

농협 641087-51-043326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접수마감 후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골프용품, 만찬제공

특전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대우 및 준회원대우

가. 우 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

나. 준우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회원대우, 주말 준회원대우

다. 메달리스트(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

US-GTF 티칭프로라이센스 실기테스트 합격권 부여

가. 남 77타, 장년부 79타, 시니어 82타

나. 장년부 : 만 41세~49세(11월 12일 기준) 다. 시니어 : 만50세 이상(11월 12일 기준)

US-GTF 라이선스 소지자 함평다이내스티CC 주중 회원대우

주최

광주일보사

주관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진행

US-GTF(KOREA)

후원

전라남도, 함평군, 전남골프협회

문의

061-320-7777, 320-7700

빛日만평

- 김중두

그럼 더 큰걸 원하신다?!